



# 컴팩트 시장에 집중하는 밥캣, 주가 하락이 과도한 현대일렉트릭

## 코멘터리 대표 차트

### 수주는 많았습니다.

- ① 주초 현대미포조선의 사우디 Bahri 벌크선(81k) 4척 수주가 업데이트되었고
- ② 현대상호중공업도 BoCom의 6월 수에즈막스 4척 계약에 딸린 옵션 행사로 4척을 추가 수주했습니다.
- ③ 다만, Big\_John의 Frontline은 중고선 시장을 이용한 선대 확대가 더 매력적이라며 현대중공업의 VLCC 옵션 2척을 포기했습니다.
- ④ 현대중공업은 인도 Swan FSRU 1기를 수주했습니다. 2호선 도입도 준비 중이어서 후속 수주를 기대해봅니다.
- ⑤ 삼성중공업 Teekay로부터 셔틀탱커 2척을, 그리고 SCF로부터 4번째 셔틀탱커 1척을 추가 수주했습니다.

### 하반기 매출절벽...

- ⑥ 매출절벽을 준비하며 현대중공업은 순환 휴직, 교육과 구조조정을 시사했는데, 이에 노조는 4시간 파업으로 응수했습니다.
- ⑦ 현대미포조선도 4개 도크 중 1개 도크를 일단 연말까지 가동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두산밥캣은 중소형 시장에 집중합니다.

- ⑧ 두산밥캣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의 헤비 장비에 대한 판매 사업권과 영업자산/부채를, 두산인프라코어에 총 1,350억원에 양수한다고 금요일 장 종료 후 공시를 통해 알렸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종속회사 두산밥캣에 잡히던 북미/유럽 헤비 실적이어서 연결 실적에 영향이 없습니다.

두산밥캣은 2016년 매출 3조9,500억원 중 두산인프라코어 헤비 판매로 6,930억원(17.5%)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상품 매출이기 때문에 헤비 사업이 사라지더라도 손익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 양수도의 목적은 지역이 아닌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의 전환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하반기 두산밥캣 컴팩트의 탑라인 성장 개시를 기대하며 최선호주로 추천 중인데, 이번 공시는 투자의견에 영향 없습니다.

### 현대사업회사들의 주가 하락이 가파릅니다.

- ⑨ 또 다른 당사 기계 최선호주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하락이 너무 과합니다. 알려진 이유 없이 주가가 빠져 짐작으로, 1) KCC가 보유 중인 지분의 오버행, 2) 인적 분할 시 현대중공업에 두고온 해외 생산법인 양수도를 2년 내에 진행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부담을 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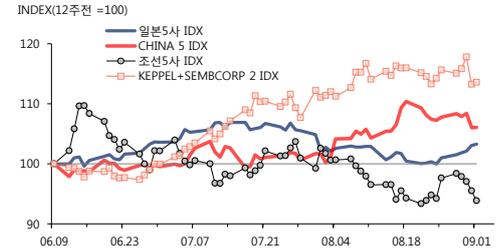
현대일렉트릭의 경우 해외 생산법인 규모가 자본총계 800억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더구나 ESS 시장 개화기에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동사에게 이러한 하염없는 주가 하락은 극심한 주가 왜곡이며 기회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 현대중공업이 보유 중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의 해외 생산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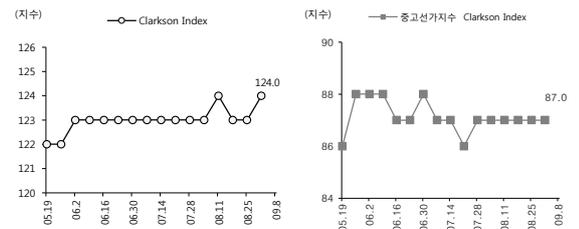
#### 2Q17 증속사

부문	지분율(%)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반기순이익
건설기계	60	중국 생산법인: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196,048	139,648	56,400	161,320	6,886
건설기계	100	인도 생산법인: HCE India	169,866	124,604	45,262	153,105	10,433
건설기계	98.91	브라질 생산법인: HHI Brasil	209,775	39,560	170,215	31,668	-18,206
<b>해외 생산법인 합산</b>			<b>575,689</b>	<b>303,812</b>	<b>271,877</b>	<b>346,093</b>	<b>-887</b>
중전기	100	중국 생산법인: 현대중공 전기유한공사	139,937	99,866	40,071	43,572	-3,144
중전기	100	미국 생산법인: HPT	161,349	119,541	41,808	49,866	-622
<b>해외 생산법인 합산</b>			<b>301,286</b>	<b>219,407</b>	<b>81,879</b>	<b>93,438</b>	<b>-3,76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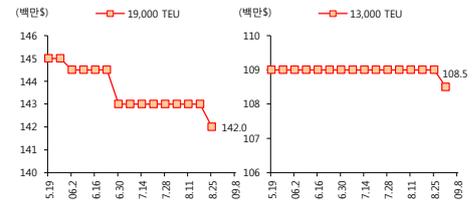
### ▶ 한/중/일/싱 주가 추세: 한국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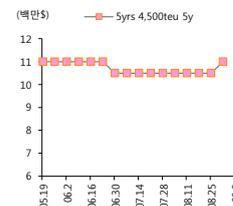
### ▶ 신조선가치수 & 중고선가치수



### ▶ 대형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수주 재개에 맞춰 꺾하락 반영



### ▶ 4,500TEU 컨선 중고선가 상승





주식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매출 절벽

- ▼ 현대중공업 인력구조조정 노조 강력 반발...이틀간 4시간씩 부분파업
- ▽ 현대중 이어 현대미포도 도크 가동 차질...일감부족 후폭풍

▷ 업 & 다운

-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통상임금 폭탄 맞을까
- ▲ 삼성중공업, 회사채 잇단 발행... 채권시장의 '달라진 평가'

△ 수주

- ▲ 현대중공업 SWAN FSRU 1기, 현대삼호중공업 수에즈 탱커 4척, 현대미포조선 Bahri 벌크선 4척
- ▽ Frontline, 현대중공업 VLCC 옵션 2척 포기
- ▲ 삼성중공업, SCF 1척 추가, Teekay 2척 등 셔틀탱커 3척 수주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치수 1P 상승

신조선가는, 지난주 19,000TEU에 이어 지난주 13,000TEU가 \$0.5M 하락했지만 신조선가치수가 1P 상승해 124P를 기록  
파나막스 벌크와 3,500TEU 컨테이너선 중조선가가 상승했지만 중조선가치수는 87P로 제자리

△ 한국 최초 수출 잠수함 인도네시아 도착

<http://lnr.li/7izEm>

한국의 첫 수출 잠수함인 '나가파사함'(1400t급)이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동부함대 사령부에 입항

△ 대우조선해양, 英 최첨단 군수지원함 3번함 명명식

<http://lnr.li/crf6N>

지난 2012년 영국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군수지원함(MARS 프로젝트) 4척 중 3번함의 명명식이 29일 옥포조선소에서 개최  
앞서 올해 1월과 6월 첫 호선과 두번째 호선을 성공적으로 인도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건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 국방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대우조선해양을 적극 추천해 ...  
... 지난 2013년 노르웨이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수지원함 1척을 수주해 현재 옥포조선소에서 건조 중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생산

△ Chevron의 Rosebank FPSO 4개사로

- Chevron이 곧 ITB를 발송 예정: 한국 BIG3와 SembCorp
- FPSO는 오일 100천b/d, 가스 80MCF/d 생산용량에, 오일 1./05백만 br 저장용량: Worley Parsons가 FEED를 담당
- 현대중공업에 FPSO를 취소 후, 더 작은 FPSO 건조를 시사했지만 SPEC.에 큰 변화가 없다고 전하기도 함: EPC사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할 의도라는 진단
- 4개사 중 Sembcorp가 가장 가능성이 낮고, DSME가 Chevron과의 우호적 관계 때문에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
- 2018년 상반기 FID, 2022년~2023년 Onstream 예정

(06월3주) ▲ Rosebank에 4사 경합: SembCorp과 BIG3

- Chevron은 4개 경합 야드와 Rosebank FPSO에 대해 협의 중이며, 입찰초청을 기다림
- 입찰초청은 6월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8월말~9월초로 예상되며, 늦으면 10월일 가능성도 있음
- 제작사는 2018년 상반기에 선정할 예정: 2019년초 FID, 2022~2023년 생산개시
- FPSO에 대한 Engineering study는 8월 중순까지 진행

(5월1주) ▲ Chevron의 Rosebank 재입찰: 시장 예상보다 빨리 진행, 곧 ITB

- Chevron의 북해 Rosebank FPSO의 재입찰이 이전 기대보다 훨씬 빨리 진행
- 시장은 2017년말에나 입찰 재개를 예상했지만, ITB가 지금부터 9월 사이에 발송되고: 4분기전이라고 확인
- EPC 본계약을 2018년 상반기에 마치고, FID를 2019년 초, 2022년 생산 개시 예정
- 2013년 현대중공업이 경쟁입찰에서 따낸 2십억\$의 Rosebank FPSO를 2016년말 계약취소하고, "Smaller & Easier to build" 계획을 밝힘
- 100천b/d, 190MCFD를 80MCFD로 낮추면서 FPSO 가격도 \$100m~\$150m 낮출 예정
- Rosebank의 컨소시엄은 Chevron 40%, Suncor Energy 30%, Siccar Point Energy 20%, Dong이 10% 보유



△ BSWA, 입찰서류 곧 접수

- Shell은 9월 안으로 10여개 응찰자로부터 BSWA(Bonga South-West)의 입찰 서류를 받을 예정
- Shell은 1Q18까지 FPSO와 SURF의 technical과 commercial 입찰을 끝낼 예정
- 2018년 7월~8월까지 입찰을 평가해서, 2018년10월 본계약을 마치고, 연말 FID,
- 2021년 상반기 야드에서 Sailaway해서, 2021년 하반기 Topside Integration을 거쳐, 2022년 중순 생산 개시 스케줄
- 나이지리아 FPSO 사업으로서, 더 강력해진 탐사이드의 50%를 현지 제작해야하는 로컬 콘텐츠 적용
- 또는 신조 외에 FPSO lease나 개조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
- 한국 BIG3 외에 글로벌 엔지니어링 하우스와 야드들이 합작 입찰 구도를 띄는데
- SBM Offshore(네)+COOEC(중) vs. Bumi Armada(말)+Saipem(이)+Teekay(미) vs. TechnipFMC+COSCO(중), CPOE(중)+CIMC Raffles+Monobuoy Nigeria(나) 구도로 참여하며
- 싱가포르 야드들의 입찰 참여여부는 불확실한 가운데, FPSO lease 업체들의 제작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02월2주) △ Shell의 Bonga South West FPSO의 EoI 접수: 빠르면 7월 입찰 시작

- Shell의 곧 다수의 입찰희망자들로부터 EoI(Expression of Interest)를 접수할 예정
-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중국 COSCO, CIMC Raffles, SBM Offshore의 참석은 확실해보이고
-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 SembCorp Marine(싱), Saipem(이), Bumi Armada(말), KBR 등이 참여할 수 있다는 풍문
- Shell은 신조 FPSO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입찰참여자는 신조 외에도 대안 옵션(개조)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전망
- 로컬콘텐츠 내용도 EOI에서 중요한 변수인데, 각 EPC사별로 로컬과의 연결고리는
- CIMC Raffles+Monobuoy Nigeria 또는 VMEvs. COSCO+Technip+Gastec
- 삼성중공업+Ladol vs. 현대중공업+NigerDock
- SBM은 중국 COOE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전하지만 나이지리아 로컬은 불분명
- 역시 DSME와 SembCrop의 나이지리아 파트너도 불분명
- EoI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입찰이 개시될 수 있지만,
- 애초 여름에 종료될 예정인 Doris Eng.과 Netco(나)의 FEED가 3분기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 FID는 2018년 예정이고, 첫 오일생산은 2021년~2022년으로 전망
- Shell 컨소시엄의 파트너는, ExxonMobil, Total, Eni, Sasol Pet.(남아공)

▶ 시추

△ Songa와 DSME의 CAT-D 소송: Songa 승

- DSME는 Cat-D 1호선과 2호선의 추가 작업과 비용이 디자인의 오류와 생략 때문이라며 \$372.8m(\$44m LD 포함) 소송을 제기(2015년)했지만
- 런던 중재법원은 Songa Offshore의 손을 들어줌
- # LD = Liquidated Damages

▶ LNG & LNG 추진

▲ Swan Energy → 현대중공업, FSRU 1기

- 인도 Swan Energy의 FSRU 프로젝트를 현대중공업이 따냄: 5MTPA 기화용량, 180k CBM 저장용량, Gujarat 지역
- 2019년 커미셔닝을 거쳐, 2020년초 가동을 시작하고, BOOT로 30년간 운영 예정
- 이미 인도 현지의 3개 업체로부터 1MTPA 씩 판매계약을 체결
- 실제 발주는 Swan Energy의 100% 자회사 Triumph Offshore가 담당
- 또한 Swan Energy는 2번째 FSRU 투입을 검토 중

▲ AET와 Statoil, 서틀탱커에 LNG 추진 선택

- MISC Group 및 AET는 Statoil과의 장기용선 계약 기반으로 2척의 서틀탱커를 삼성중공업에 기발주 했는데
- 해당 선박에 DP2(Dynamic Positioning 2) 및 Dual-Fuel의 LNG 추진을 선택
- 125k 2척의 계약금액은 \$237.5m, 4Q19~1Q20 인도 예정
- Statoil은 용선 기한을 5년 \$200m, 7년 \$275m 두가지 옵션에서 고민 중



## 한국 조선업 수주설

###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 ① Bahri Dry Bulk → Hyundai Mipo, BULK(80K) 4척

- ▲ Bahri → 현대미포조선-비나신 벌크선 4척 발주
- Bahri Dry Bulk는 현대미포조선에 81k 벌크선 4척 발주. 옵션은 없음, 신조선가 \$30m로 전해짐
- 비나신이 건조할 수 있는 계약 구조: 비나신은 2013년 수주 이후 오랫동안의 벌크선 수주
- 이번 발주로 Bahri는 기존 5척의 선대를 거의 두배로 늘림. 발주 사유는 국내의 곡물 수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② Sovcomflot JSC → Samsung HI, TK(42K) 1척

- ▲ SCF → 삼성중공업, 셔틀탱커 1척(4호선) 추가
- 작년에 삼성중공업에 42k 셔틀탱커 3척을 발주했던 러시아 Sovcomflot은
- 2019년 10월 인도 예정으로 4호선 1척을 추가 계약

#### ③ Teekay Shuttle → Samsung HI, TK(158K) 2척

- ▲ Teekay → 삼성중공업, 셔틀탱커 2척
- 셔틀탱커 2척, \$274m 발주. LNG 추진선 채용, 2019년~2020년 인도, 옵션 2척을 포함
- Teekay Offshore는 해당선박을 Statoil과 용선
- 삼성중공업은 지난 여름 MSC로부터 125k 셔틀탱커 2척을 적당 \$125m에 수주한 이후 두번째 셔틀탱커 수주
- >> 지난주에 수주 공시된 건입니다. 세부 발주 내용이 있어 이번주에도 또 기재합니다.

###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 Trafigura 발 BoCom → 현대삼호중공업, 수에즈막스 탱커 4척

- BoCom은 6월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수에즈막스 탱커 4척에 달린 옵션을 행사해 4척 추가 계약. 총 8척
- 신조선가는 \$51.5m
-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12척의 MR탱커와 합쳐, 총 20척에 \$796m 규모 계약 (07월4주) △ BoCom은 현대삼호중공업에도 4+4척 수에즈막스 탱커
- Trafigura 용선 발주에서 Suezmax+LR2 세트 발주도 함께 했는데
- 중국 New Times SB가 Suezmax 4척, LR2 4척을 수주했고
- 현대삼호중공업도 157k 4척을 계약
- 또한 New times SB는 옵션 6척, 현대삼호중공업은 4척의 옵션을 받은 것으로 전해
- Suezmax 신조선가는 \$51.5m
- (6월1주) ▲ Trafigura. 중국과 한국에 나눠 22척+10척. 13.5억\$ 발주. 현대미포 MR탱커 6척 수주 추정

#### ▲ Swan Energy → 현대중공업, FSRU 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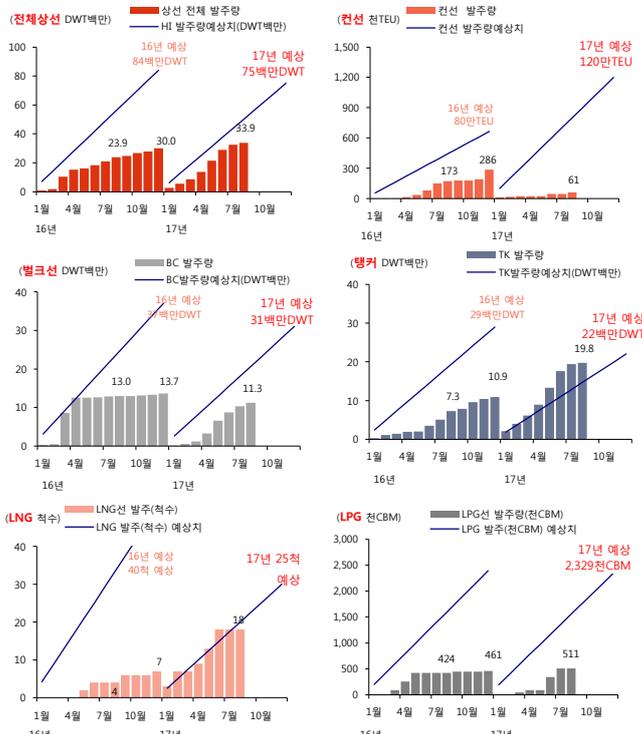
- 위의 LNG 섹션 참조

#### ▽ Frontline, 현대중공업에 VLCC 옵션 포기하고, 중고선 매입하기로

- John Fredriksen의 Frontline은 올해 VLCC 2척을 발주하며 옵션 2척을 보유했지만 \$80m 하회
- 옵션을 포기하고, 중고선 시장이 더 매력적이라며 중고선 매입을 통해 선대를 확대하기로 결정
- 중국 SWS(Shanghai Waigaoqiao SB), New Times SB와 협의 중이던 VLCC 신조 발주도 드랍한 것으로 전해짐

##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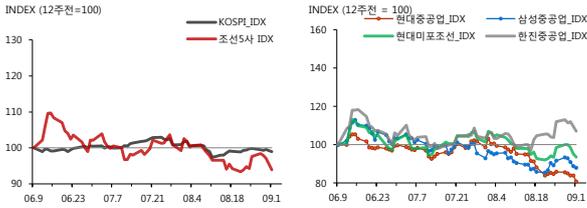
###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b>17년08월1주</b>								
한국	Hyundai HI (Ulsan)	17.7.31	유럽	Vitol Group	LPG	84k cu.m.	2019	2
중국	Jiangsu New YZJ	17.7.17	유럽	Evalend Shipping	BULK	82k DWT	2018	2
일본	Namura Shipbuilding	17.8.1	유럽	Pleiades Shpg. Agcy.	BULK	85k DWT	2019	2
<b>17년08월2주</b>								
민영	Zhejiang Ouhua SB	17.8.4	유럽	Cape Shipping	CONT	3k TEU	2019	2
	Xiamen Shipbuilding	17.5.1	유럽	Siem Car Carriers	PCTC	8k Cars	2019	2
일본	Miura Zosen	17.5.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1k DWT	2018	1
		17.4.1	일본	Fuji Kaiun	BULK	2k DWT	2018	1
			일본	Taiyo Kisen	BULK	6k DWT	2018	1
	Kanrei Zosen KK	17.5.1	일본	Unknown Japanese	PTK	5k DWT	2018	1
	Shin Kochi Jyuko	17.4.1	일본	Mitsui & Co	BULK	38k DWT	2018	1
				Dowa Line Co Ltd	BULK	15k DWT	2018	1
				Unknown	BULK	38k DWT	2019	1
	Sumitomo (Yokosuka)	17.5.1	아시아	Unknown Singapore	TK	112k DWT	2019	2
	Naikai Innoshima	17.4.1	Unknown	Unknown	PTK	19k DWT	2019	1
	Kawasaki HI Kobe	17.7.4	일본	Government of Japan	FERRY		2020	1
	Kanda Zosen	17.4.1	Unknown	Unknown	BULK	7k DWT	2018	1
				RORO			2019	1
<b>17년08월3주</b>								
한국	Dae Sun Shipbuilding	17.8.15	중국	SITC	CONT	1k TEU	2018~2019	4
		17.5.1	중국	SITC	CONT	1k TEU	2018	2
일본	I-S Shipyard	17.4.1	Unknown	Unknown	BULK	7k DWT	2019	1
<b>17년08월4주</b>								
민영	Jiangsu New YZJ	17.7.24	유럽	Angelakos Hellas SA	BULK	82k DWT	2019	4
	AVIC Dingheng SB	17.8.25	유럽	SOCATRA	PTK	8k DWT	2019	2
	Fujian Mawei SB	17.7.21	중국	Shun Yuan Group	OTHERS	7k DWT	2018	1
	Hin Lee Shipyard	17.3.1	아프리카	Kenya Ports Auth.	OFF-기타	4k HP	2018	1
		17.2.1	아시아	Cheoy Lee Shipyards	OFF-기타		2017~2018	4
		17.1.1	아시아	Cheoy Lee Shipyards	OFF-기타	4k HP	2018	2
	Fujian Southeast SB	17.8.18	중국	Fujian Anda Shpg	BULK	21k DWT	2019	1
	Aulong SB Co	17.8.2	중국	Zhuhai Ferry	FERRY		2018	1
일본	JMU Ariake Shipyard	17.7.1	일본	Mitsubishi Ore Tpt	BULK	208k DWT	2020	1
	Oshima Shipbuilding	17.8.25	북미	Foremost Maritime	BULK	85k DWT	2019	2
<b>17년08월5주</b>								
한국	Hyundai Mipo	17.8.25	중동	Bahri Dry Bulk	BULK	80k DWT	2020	4
	Samsung HI	17.8.31	러시아/CIS	Sovcomflot JSC	TK	42k DWT	2019	1
		17.8.25	북미	Teekay Shuttle	TK	158k DWT	2019~2020	2



##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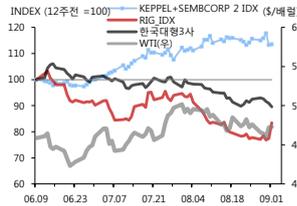
###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 조선업 한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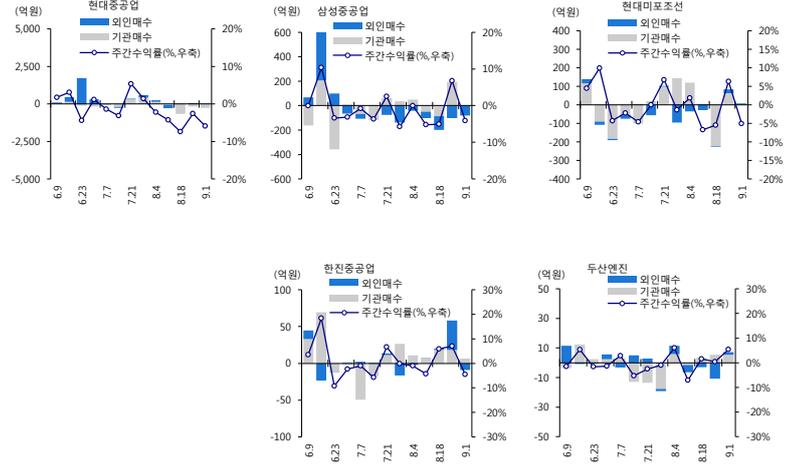


###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 조선 수급

### ▶ 조선6사 수급



## 국내 보도

### ▶ 공통 보도

####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통상임금 폭탄 맞을까

<http://nr.ii/3i3KJ>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은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조선업황이 나빠지면서 경영상황도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측이 승소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기준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만큼 향후 통상임금 최종심 결과가 또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관련 최종심에서 모든 쟁점을 놓고 질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6300억 원 규모로 추정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중공업도 통상임금 최종심에서 모든 사안에서 패소하면 각각 920억 원, 87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 ▷ 文대통령 "바다가 국력...해운업·조선업 상생위해 연계해야"

<http://nr.ii/IM2zn>

해운업과 조선업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연계해야 하고, 경기를 살리면서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 ▶ 현대중공업 보도

#### ▽ 현대중공업 인력구조조정 노조 강력 반발...이틀간 4시간씩 부분파업

<http://nr.ii/0846P>

기본급 20% 삭감을 철회하는 대신 강도 높은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현대중공업의 제시안에 노조가 강하게 반발: 교섭과 함께 29일과 9월 1일 이틀간 4시간씩 부분파 협대중공업은 유휴인력 문제해결을 위해 임금부담을 노사가 함께하자고 노조에 꾸준히 제안해 왔고 ... 기본급 20% 삭감을 제시했을 때 노조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 이미 3개 도크의 가동을 중단했고, 5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유휴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 휴직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 현대중 이어 현대미포도 도크 가동 차질...일감부족 후폭풍

<http://nr.ii/XfoKY>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미포조선도 일감 부족으로 도크 가동을 중단 울산 본사 4도크의 가동을 12월까지 3개월가량 중단: 4개의 도크가 있는데, 모두 40만 규모이지만 4도크는 35만으로 가장 작은 것 12월 중 로팩스선(로팩스는 Roll on Roll off & Passenger의 약자로 과거 카페리선) 건조 때부터 다시 4도크에서 생산 공정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기로 현대중공업도 조선 수주 잔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7월부터 군산조선소 도크를, 앞서 올해 3월 울산 본사 조선소 5도크, 지난해 6월 울산 본사 4도크의 가동을 각각 중단한 바

#### ▷ 현대로보틱스 31일 대구서 공식 출범

<http://nr.ii/Q5nIP>

31일 대구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현대로보틱스 본사에서 공식 출범 부지는 7만8,084㎡, 공장건물은 2만6,387㎡ 규모 대구 이전 후 연간 생산량을 기존 4,800여 대에서 8,000여 대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기 위해 신규투자자 함께 현재 260여 명인 고용인원을 늘릴 계획 현대로보틱스는 오는 2021년까지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 △제품 및 시장 다변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 등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로봇종 유종군 현대로보틱스 대표는 "산업용 로봇 분야는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꾸준히 R&D 투자를 늘리고 영업망을 확대해 2021년 매출액 5000억원의 세계 5위 로봇종합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설명

#### ▷ 하이투자증권 매각 사실상 '무산'

<http://nr.ii/4eC7R>

우리은행이 높은 인수가격과 IMM프라이빗에퀴티(PE)를 활용해 인수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해 사실상 인수를 포기 DGB 금융그룹 또한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4천억원을 넘는 매각가를 주고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기에는 출혈이 너무 심한데 최근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불거져 당초 현대중공업의 하이투자증권 매각 희망가격은 4,700억원: 하이투자증권의 손상차손 등을 반영해 매각 희망가를 4,300억원 낮춘 상태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의 평균 PBR 0.7배를 반영하면 하이투자증권의 적정매각가가 이보다 더 낮은 4,12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도는 주장



## ▶ 삼성중공업 보도

### ▲ 삼성중공업, 회사채 잇단 발행... 채권시장의 '달라진 평가'

<http://lnr.li/bEXZj>

최근 한 달 새 1400억원을 웃도는 현금 확보에 성공하면서 올해 대규모 차입금 만기 도래에 따른 유동성 고비를 무난히 넘길 전망이다. 전날 사모사채 발행으로 모두 820억원을 2만기별로 1년6개월 만기 620억원, 2년 만기 100억원, 2년6개월 만기 100억원어치를 발행  
지난달 28일 발행한 1년 만기 회사채 600억원어치를 포함할 경우 한 달 만에 1420억원의 현금을 확보  
사모사채는 일부 캐피탈사와 공제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덕분에 시장 예상보다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소화된 것으로 파악  
발행금리는 1년6개월물이 연 4.2%, 2년물이 연 4.4%, 2년6개월물이 연 4.6%

## ▶ 대우조선해양 보도

### △ 대우조선, 300억원 인니 해군 잠수함 창정비 수주

<http://lnr.li/9UJzT>

인도네시아 최대 조선소 PT.PAL사와 함께 현지 해군으로부터 209급 잠수함 '차크라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  
기존에 운영하던 잠수함을 통째로 분해해 내부 부품을 새롭게 교체해 성능을 높이는 개조 공사  
대우조선은 잠수함 창정비를 위한 기술 지원과 자재 공급을 담당하고, 현지 조선소는 인력을 투입해 개조 공사를 수행

## ▶ 중소형 조선사

### ▷ 조선업 구조조정 기조 변화 생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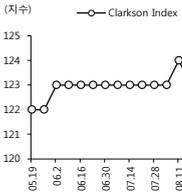
<http://lnr.li/VzQMO>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중소 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존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  
STX조선해양·성동조선해양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동안 유지해 온 조선업 구조조정 원칙이 깨졌다는 점에서 향후 변화의 가능성  
이에 대해 금융위는 STX조선, 성동조선, 대선조선 등 일반상선을 건조하는 조선사들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기존 조선업 구조조정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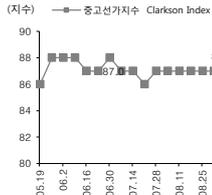


##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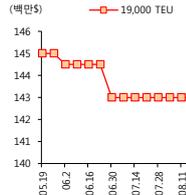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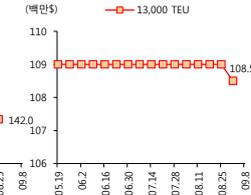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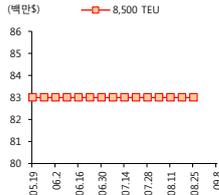
▶ 메가 울트라막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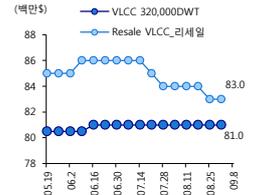
▶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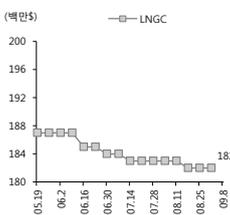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 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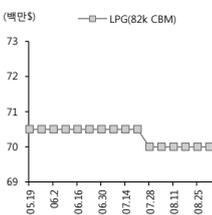
▶ 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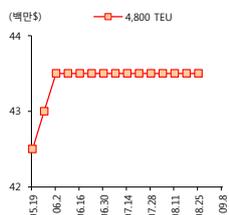
▶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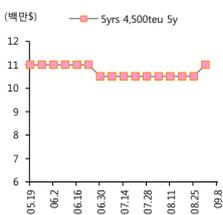
▶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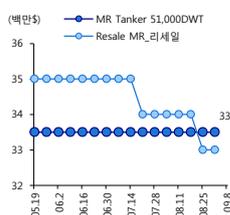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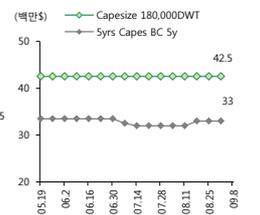
▶ 컨테이너선 - 중고선가 4,500teu



▶ MR탱커 신조 vs 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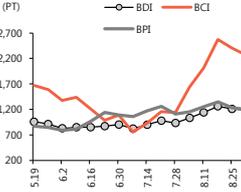


▶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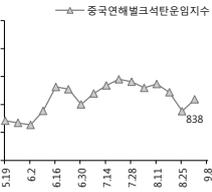


## 운임지수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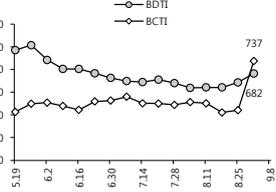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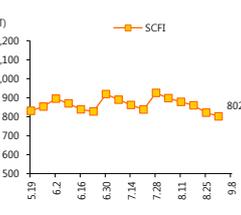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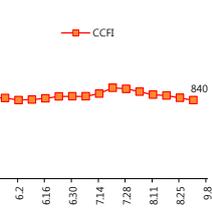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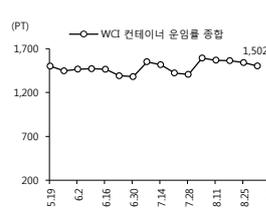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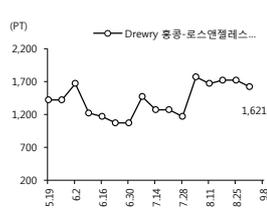
▶ 컨선 지표들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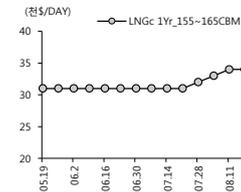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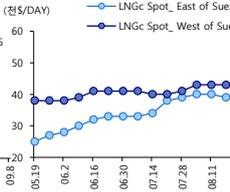


##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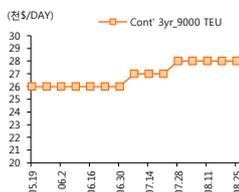
▶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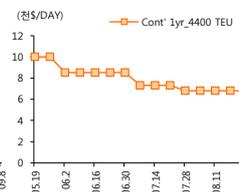
▶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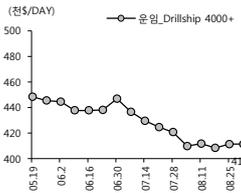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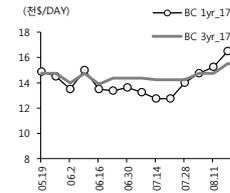
▶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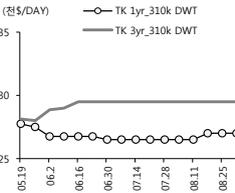
▶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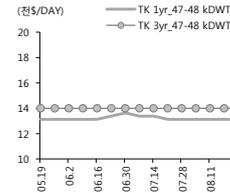
▶ 벌크선 - 케이프



▶ 탱커 - VLCC



▶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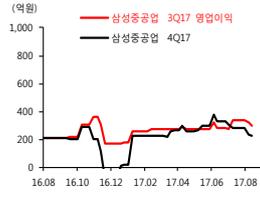


##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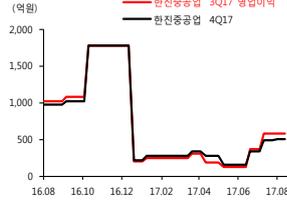
###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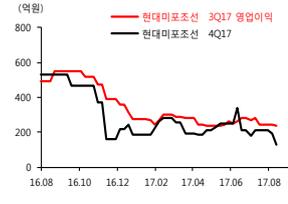
### ▶ 삼성중공업



### ▶ 한진중공업



###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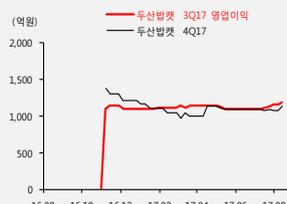
### ▶ 두산중공업



### ▶ 두산인프라코어



### ▶ 두산밥캣



### ▶ 두산엔진



###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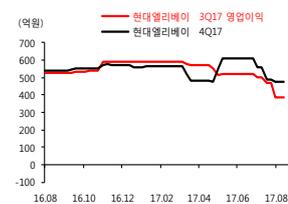
### ▶ 현대건설기계



### ▶ 현대로템



### ▶ 현대엘리베이터



###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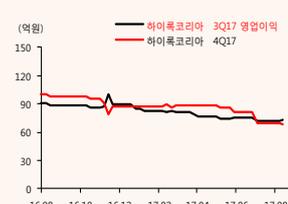
### ▶ 성광벤드



### ▶ 태광



###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8.05	17.08.12	17.08.19	17.08.26	17.09.01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11,206	13,173	4,946	6,109	5,812	5,985	5,985	12,065	15,393	152%	165%	9.3	143,000
	삼성중공업	260	281	313	291	270	270	276	269		-8%	-1%	39.5	10,600
	현대미포조선	5,627	3,878	3,750	4,820	8,676	9,201	9,201	9,468	9,533	98%	10%	10.4	99,200
	한진중공업	454	108	-203	-269	-123	-123	-289	-289	-411	적지	적지	-11.2	4,590
두산	두산중공업	1,739	1,490	1,433	1,454	1,061	1,047	1,023	840	689	-53%	-35%	25.5	17,600
	두산인프라코어	778	785	813	808	870	878	878	878	889	10%	2%	9.4	8,350
	두산엔진	188	409	172	178	188	174	174	174	177	0%	-6%	23.8	4,21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25,906	28,411	32,313	31,298	31,298	31,298	30,744			10.8	333,000
	현대일렉트릭	0	0	26,837	27,046	26,902	27,300	27,300	27,300	26,997			9.7	263,000
	LS산전	3,385	3,593	3,563	3,673	3,862	3,862	3,862	3,862	3,900	6%	1%	14.8	57,800
	현대엘리베이터	5,703	5,580	5,387	5,326	4,991	4,926	4,569	4,569	4,420	-17%	-11%	11.8	52,300
방산	현대로템	756	687	645	639	523	523	523	521	504	-21%	-4%	35.9	18,100
	한국항공우주	2,619	2,560	2,503	2,456	2,200	2,200	1,748	1,709	1,709	-30%	-22%	26.7	45,650
	한화테크윈	2,417	2,249	2,266	2,200	1,964	1,964	1,963	1,954	1,899	-14%	-3%	20.4	38,650
	LIG넥스원	3,848	3,875	3,768	3,705	4,557	4,557	4,651	4,651	4,651	26%	2%	17.7	82,500
피팅	성광벤드	106	-27	-83	-75	-82	-100	-100	-100	-92	적지	적지	-107.6	9,890
	태광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51.8	9,770
	하이록코리아	1,910	1,913	1,909	1,896	1,837	1,874	1,874	1,837	1,869	-1%	2%	11.7	21,950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8.05	17.08.12	17.08.19	17.08.26	17.09.01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231,775	309,552	209,808	207,712	205,482	205,482	205,482	211,387	211,417	7%	1%	0.7
	삼성중공업	17,225	17,300	18,596	18,788	18,711	18,711	18,711	18,703	18,712	1%	1%	0.6
	현대미포조선	108,677	109,721	113,674	113,175	119,596	119,596	119,596	119,203	121,227	8%	2%	0.8
	한진중공업	11,120	11,076	8,806	8,453	8,810	8,810	8,616	8,616	8,616	-5%	2%	0.5
두산	두산중공업	31,937	31,093	31,446	30,702	30,118	30,164	30,126	30,089	30,062	2%	5%	0.6
	두산인프라코어	10,800	10,565	10,409	10,684	10,868	10,616	10,616	10,616	11,047	8%	9%	0.8
	두산엔진	7,763	7,700	7,857	7,877	7,949	7,956	7,956	7,956	7,921	2%	2%	0.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233,248	231,663	234,252	232,512	232,512	232,512	231,895	13%	15%	1.4
	현대일렉트릭	0	0	232,775	232,450	225,780	225,780	225,780	225,780	225,780	12%	13%	1.2
	LS산전	38,865	39,211	39,138	38,940	39,086	39,086	39,086	39,086	39,113	10%	11%	0.0
	현대엘리베이터	38,876	38,291	37,757	37,757	37,050	36,969	35,026	35,026	35,026	13%	13%	1.5
방산	현대로템	17,125	17,049	17,061	17,059	16,964	16,964	16,964	16,967	16,914	3%	5%	1.1
	한국항공우주	16,591	16,469	16,307	16,256	15,904	15,904	15,447	15,400	15,401	11%	15%	3.0
	한화테크윈	48,838	46,958	45,433	45,667	45,246	45,246	45,245	45,217	45,026	4%	5%	0.9
	LIG넥스원	31,343	31,559	31,472	31,402	32,127	32,127	32,210	32,210	32,210	14%	13%	2.6
피팅	성광벤드	16,496	16,529	16,512	16,540	16,540	16,524	16,524	16,538	16,564	-1%	1%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6
	하이록코리아	23,868	24,035	24,001	23,849	23,776	23,849	23,849	23,849	23,800	8%	7%	0.9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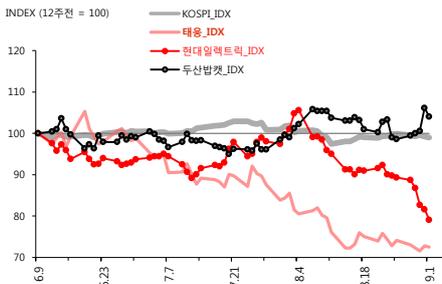
## 키 차트

▶ 9월1일 공시: 두산밥캣 → 두산인프라코어: 유럽, 북미/캐나다, 오세아니아의 Heavy Equipment 판매 사업권 및 영업자산/부채 양수도

지역	거래상대방 → 지역	수량	양도 내용		
			양수일자	양수가액(억원)	양수목적물
체코	Doosan Bobcat EMEA s.r.o. → 네덜란드	Doosan Infracore Customization Center Europe B.V.	2018.01.01	537	유럽 지역 Heavy Equipment 판매사업 관련 영업자산/부채 및 사업권 양수
미국	Clark Equipment Co. → 미국	Doosan Infracore North America LLC	2018.01.01	740	북미/캐나다 지역의 Heavy Equipment 판매, 유통에 대한 사업권 및 관련 영업자산/부채
미국	Clark Equipment Co. → 한국	두산인프라코어	2018.01.01	72	오세아니아 Heavy 사업 관련 사업권 및 영업자산
				1,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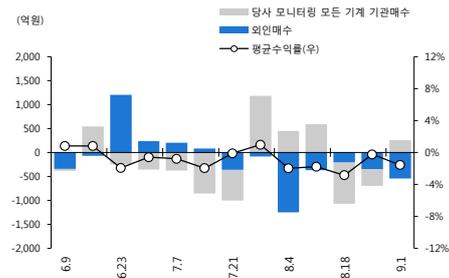
##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 기계 업종 뉴스

### 탈원전 & ESS

#### △ 두산중공업, 美 전력저장장치 사업 '힘 실기'

<http://nr.li/xUDna>

전력저장장치(ESS)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투입

: 두산중공업은 100% 자회사인 '두산그리드텍(Doosan GridTech)'에 약 64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

이번 출자로 두산그리드텍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408억 원에서 471억 원으로 늘: 지난해에도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리드텍에 361억 원가량을 투입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

... "수주 활동을 벌이는 등 외형을 확장하는 데도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

#### △ 두산중공업, '태양광+ESS' 발전소 준공

<http://nr.li/9BUYF>

경남 창원 본사 건물 옥상 등에 300kW 태양광 발전설비와 1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태양광+ESS' 발전소를 준공

#### △ LS그룹이 전력 인프라·스마트 에너지 등을 발판으로 성장에 속도

<http://nr.li/gO3ws>

LS산전은 1)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빠르게 확대: 마이크로그리드는 섬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전력망 변압기 등 전력 사업과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쌓은 기술에 센서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융복합해 이 시장을 공략

2) 대용량 ESS(에너지저장장치)를 내세워 북미 등 해외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대

지난해 8월 MW(메가와트)급 ESS용 전력변환장치가 미국 안전 규격인 UL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11월엔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학교로부터 태양광발전과 ESS를 연계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캠퍼스 구축 사업자로 선정

일본에서는 28MW급 홋카이도 지토세 태양광 발전소가 올 10월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음

## 건설기계

### ▶ 두산밥캣, 유럽 지역 중장비 사업권 등 양도

<http://nr.li/xJRUj>

두산밥캣은 유럽 지역 중장비(Heavy Equipment) 판매사업 관련 영업자산과 부채 및 사업권을 양도한다고 1일 공시: 양도가액은 537억 2934만 8400원

중속회사인 유럽법인(Doosan Bobcat EMEA s.r.o.)이 유럽지역의 중장비 판매, 유통에 대한 사업권 및 관련 영업자산과 부채를 ...

... 두산인프라코어의 중속회사인 유럽법인(Doosan Infracore Customization Center Europe B.V.)에 양도하는 것

### ▶ △ 두산밥캣, 중대형 건설기계사업 두산인프라코어에 1억2,000만 달러 양도... "제품 중심 개편"

<http://nr.li/UuU9j>

두산밥캣은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시장에서 운영해온 중대형 건설기계 판매사업을 내년엔 두산인프라코어로 이관

양수도 금액은 약 1억2,000만 달러로 두 회사는 연내 사업양수도 및 경영체계 조정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

건설기계 사업을 기존 '지역' 관점에서 '제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



## 큰 기계들

### △ 한국동서발전-두산중공업, 발전운영시스템 공동개발 사업 협약

<http://lnr.li/0uL8g>

솔루션 및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발전 플랜트 감시 및 진단서비스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  
두 회사는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디지털 솔루션 기반의 이-브레인(e-Brain) 센터의 공동운영을 추진  
e-Brain 센터는 예방점검, 정비체계 종합 진단 등 발전설비를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수행

### △ 두산건설, 869원대 고양향동 아파트 건설계약 체결

<http://lnr.li/SGIkD>

한국토지주택공사와 869억1478만원 규모 고양향동 A3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계약을 체결

## 한진중공업

### ▷ 한진중, 발전 3사 매각 중단?

<http://lnr.li/KzczM>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산업은행은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발전 3사(대륜E&S, 벌내에너지, 대륜발전)매각 진행하기로 결정  
올해 인천 울도 부지(2980억 원)와 대대포공장(1600억 원) 매각에 성공하면서 우선 급한불은 갚는다는 설명  
발전사의 경우 매출 사이즈는 가장 크지만 악화된 업황으로 인해 매각자와 원매자 간 가격 눈높이 차가 큰 상황  
대신 규모는 작더라도 한진중공업 비주력 사업으로 분류되는 자회사들 정리에 집중할 계획  
: 원래 자구안 계획에는 없었지만 최근 주인 찾기에 성공한 한국종합기술이 그 예  
채권단은 우선 필리핀의 수빅조선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  
... 1조 이상의 감정가를 받은 인천 북항 배후부지(울도 부지)를 분할 매각형태로 팔면서 한진중공업의 재무 상태를 개선할 계획

## 여타 기계들

### ▽ 국산 K2 전차 내년 납품도 '스톱'

<http://lnr.li/zcGNP>

S&T중공업이 제작한 국산 변속기의 결함 문제로 국산 K2 전차의 납품이 8개월째 지연  
: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납품 예정이던 국산 K2 전차 30여대가 현재 현대로템 창원공장에 방치돼 있는 상태  
내년 초까지 육군에 K2 전차 106대를 납품해야 하는 2차 양산사업에도 급브레이크  
K2 전차 관련 부품공급업체 119곳에 약 1000여억원 가량의 재고물량이 쌓여있는 상태  
K2 전차를 최종적으로 체계개발하는 현대로템의 지체상금(지연배상금) 부과 예상액은 현재까지 약 800억원대 규모로 추산  
양산이 지연될수록 업체가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과 부품 협력사들의 재고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  
방위사업청은 2014년 11월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적용된 K2 전차 106대 규모의 2차 양산을 결정, 현대로템과 생산 계약을 체결  
현대로템은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 변속기는 S&T중공업에서 각각 납품하기로  
당시 S&T중공업은 2013년 5월 독자 개발한 K2 전차 1500마력 6단 자동변속기의 군 운용시험(OT)을 중대결함 없이 완료했다고 발표한 상태  
S&T중공업이 개발한 변속기를 장착한 K2 전차의 내구도시험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2월18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1년간 6차례 연속 불합격

### △ 씨에스윈드, 태국에 풍력 발전기 공급계약 64억원

<http://lnr.li/SnRax>

28일 태국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 A/S와 윈드 타워(풍력 발전기) 공급계약을 64억2374만원에 체결했다고 공식  
베트남법인 생산납품이 계약 조건이며 계약기간은 지난 8월 25일부터 내년 1월 25일 까지

### ▷ 유니슨, "동남아 등 신흥시장 노린다" 4.2MW 풍력발전기 수출로 신흥시장 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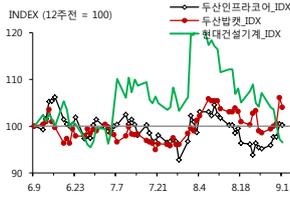
<http://lnr.li/uGsNZ>

4.2MW 터빈은 현재 육상용 풍력 발전기로는 최대 용량: 그 이상은 주로 해상용으로 임  
4MW 이상은 운반이 어려워 모듈화로 개발  
유니슨은 2001년 750KW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MW, 2.3MW를 성공적으로 출시  
지난 2015년부터 4MW풍력 터빈을 개발  
지난해부터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 저풍속 시장 진출을 위한 풍력발전기 개발을 진행  
유니슨은 국내 최초로 4MW 부유식 풍력발전을 위한 국가 과제도 따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은 부력을 이용해 부유식 구조물을 해상에 띄우는 형태다. 주로 수심이 50M 이하인 곳



## 건설장비

###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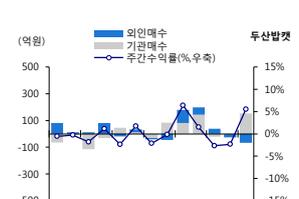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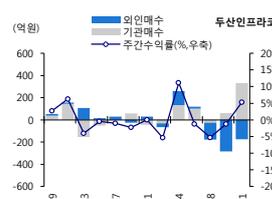


###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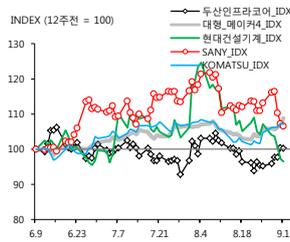


##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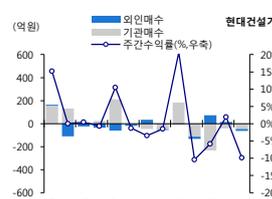
### ▶ 건설장비 메이커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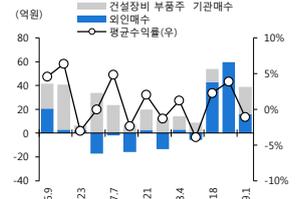
###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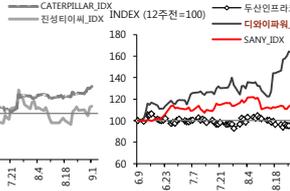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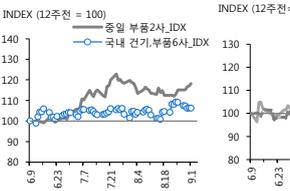
###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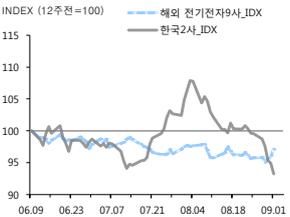


###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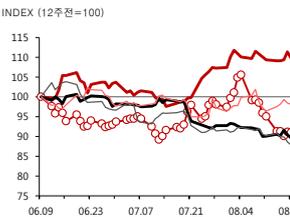


## 중전기

###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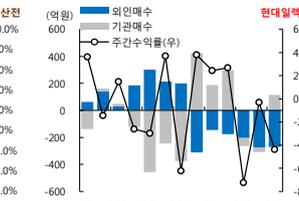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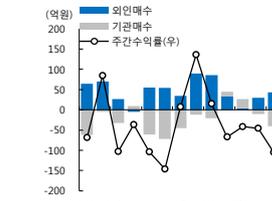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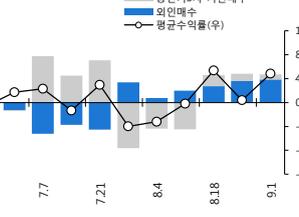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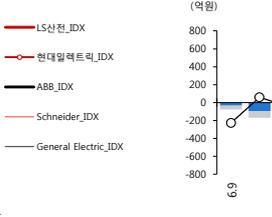


### ▶ 한국 동력부품5사



##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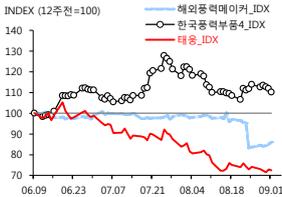
### ▶ 동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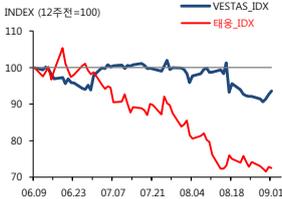


##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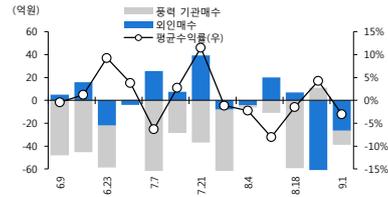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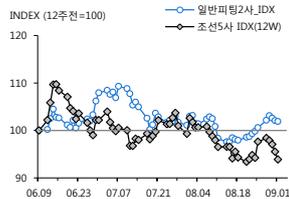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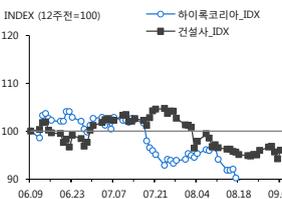
##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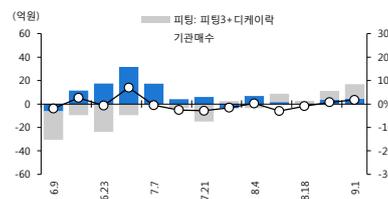


##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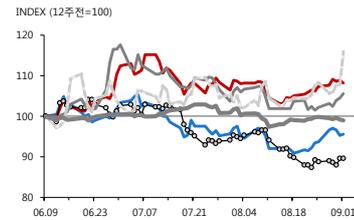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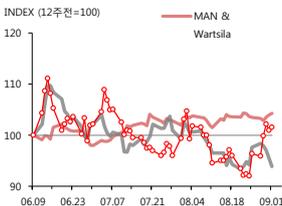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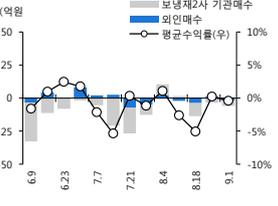
##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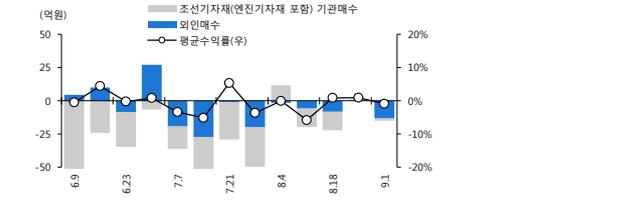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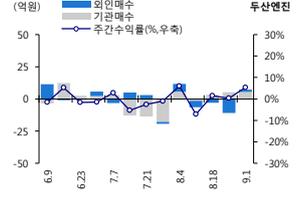


##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재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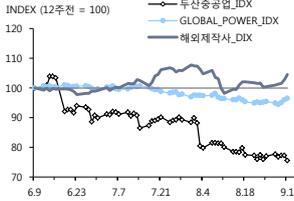
▶ 두산엔진





## 발전 및 발전기자재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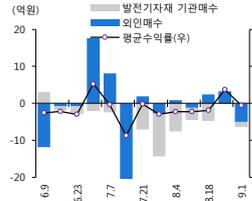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 발전업 수급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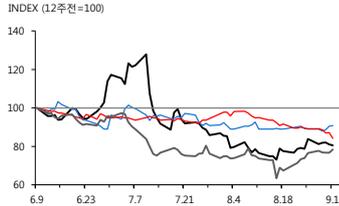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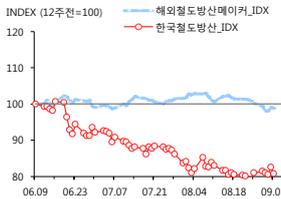
주식) 비에이지아이, S&T, 한솔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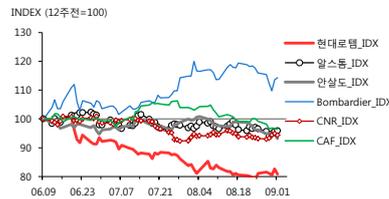


##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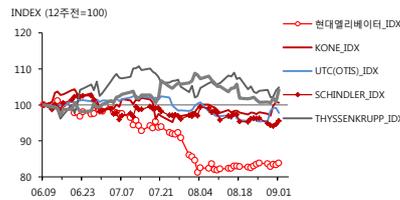
▶ **현대로템**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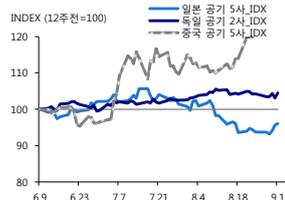


## 공작기계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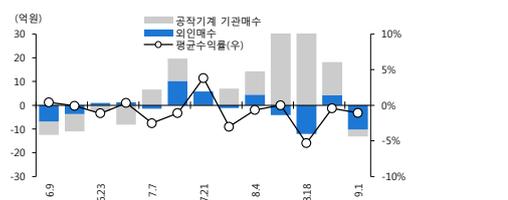


▶ **Global Peer - 지역별**



##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의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사 : 최광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록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